제11강 내경편 성음(聲音) / 언어(言語)

(1교시)

* 내경편 성음(聲音)

§. 목소리는 신(腎)에서 나온다 (p.683)

심(心)은 목소리의 주인이고, 폐(肺)는 목소리가 나오는 문이며, 신(腎)은 목소리의 뿌리이다. 풍, 한, 서, 습, 혈, 담, 열 등의 사기가 심폐를 침범하면 상완(上腕)에 병이 생기는데, 증상에 따라 치료하여 사기가 흩어지면 목소리가 나온다. 신이 허하여 병이 되면 여러 기운을 받아들여 본원[腎]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므로 기가 거슬러오르게 되어 기침이 나고 담이 막히고 뭉치며 혹은 숨이 차거나 가슴이 가득 차고 가슴과 배, 온몸의 뼈가 당긴다. 기침이 심해질수록 기는 더욱 부족해지고 목소리도 더욱 메마르게 된다(<인재직지>).

◎ 어떤 어린아이가 토하고 설사를 하였는데, 전을이 과루탕을 써서 나았다. 그 어린아이가 또 대소변을 보지 못하여 다른 의사가 약을 써서 대소변을 보게 하였는데, 몸이 차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전을이 익황산과 사군자환을 쓰자 과연 몸이 따뜻해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 어린아이가 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전을이 "이것은 차가운 약으로 오줌을 누게 하여 비와 신이 모두 허해졌기 때문인데, 이제 비는 실해졌으나 신이 아직 허하여 그렇다"라고 하며 육미지황원을 한 달 동안 써서 나았다(전을).

? 신이 허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인삼평보탕을 쓴다.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말을 하지 못하면 신기환을 쓴다.

§. 목소리를 듣고 병증을 분별함 (p.685)

◎ <난경>에서는 "듣고서 안다는 것은 오음(五音)을 듣고 질병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령 간이 병들면 목소리가 슬프고, 폐가 병들면 목소리가 급하고, 심이 병들면 목소리가 웅장하고, 비가 병들면 목소리가 느리고, 신이 병들면 목소리가 가라앉고, 대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길고, 소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짧고, 위가 병들면 목소리가 빠르고, 담이 병들면 목소리가 맑고, 방광이 병들면 목소리가 약하다(<만병회춘>).

◎ <내경>에서는 "목소리는 오음과 짝한다"고 하였다. <의학입문>에서는 "금(金)의 소리는 울리고, 토(土)의 소리는 탁하고, 목(木)의 소리는 길고, 수(水)의 소리는 맑고, 화(火)의 소리는 메마르다"고 하였다.

◎ 토(土)의 소리는 깊은 항아리 속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습이 성하면 목소리가 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습한 것이 마치 물 속에서 말하는 것 같다(동원).

(2교시)

§.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p.687)

◎ 술에 취해서 자다가 바람을 맞으면 목이 쉬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세의득효방>).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갑자기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형소탕, 인삼형개산, 사간탕을 쓴다.

◎ 어떤 병으로 갑자기 벙어리가 된 데는 행인 일곱 돈 반을 볶은 것과 계심가루 두 돈 반을 같이 진흙처럼 잘 찧어 오얏씨[李核大]만 하게 솜에 싸서 입에 물고 즙을 내어 마시는데, 낮에 5번 밤에 3번 먹는다(<본초>).

◎ 다른 방법으로는 고죽엽을 진하게 달여 먹거나, 귤피를 진하게 달여 자주 먹는다(<본초>).

◎ 풍랭(風冷)으로 갑자기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자소엽과 형개수 한 냥을 찧어 즙을 내어 술에 넣고 잘 섞어 반잔씩 따뜻하게 먹는다(단심).

§. 잡병으로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p.691)

중풍을 앓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으나, 단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는 아풍이라고 부른다. 소속명탕에서 부자를 빼고 석창포를 한 돈 더하여 쓰거나, 가자청음탕을 써도 된다(<고금의감>). ◎ 해수로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인삼청폐산, 행인전, 합개환을 쓴다. ◎ 담이 막혀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옥분환, 궁신산을 쓴다. ◎ 허손으로 파리하고 기혈이 부족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할 때 천진원을 쓰는데, 복용한 지 보름이 지나면 저절로 말이 나온다(<세의득효방>). ◎ 노래를 너무 불러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향성파적환을 쓴다(<만병회춘>). ◎ 후두가 아프고 창(瘡)이 생겨서 벙어리가 된 데는 통애산을 쓴다. ◎ 두창을 앓고 난 뒤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풍씨천화산을 쓴다. ◎ 아기를 낳은 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면 복령보심탕을 쓴다.

§. 말을 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p.699)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가 음분(陰分)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내경>에서는 "사기가 음분에 부딪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고, 또 "사기가 음분에 침입하여 부딪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증이 있다. 첫째는 '설음(舌?)'이라 하는데, 중풍으로 혀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후음'이라 하는데, 허로(虛勞)로 기침을 많이 하여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대개 설음은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인후에서의 목소리는 여전하며, 후음은 단지 후두에서 목소리가 쉰 것으로, 혀 자체는 움직여 말을 할 수 있다(<의학강목>).

§. 신겁증과 실음은 서로 비슷하다 (p.703)

토하고 설사하거나 크게 앓은 뒤에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이것은 실음(失音)이 아니라 신(腎)이 몹시 약하여 [신기가] 위로 양기와 접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신지황원이 주치한다. 실음은 풍한에 감촉되어 갑자기 병이 되는 것이다(전중양).

§. 숨쉴 때 소리가 나는 것 (p.705)

잠을 자지 못하고 숨쉴 때 소리가 나는 것은 양명경의 기가 거슬러 흐르기 때문이다. 족삼영경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슬러 위로 올라가므로 숨쉴 때 소리가 나는 것이다. 양명경은 위의 경맥인데, 양명경의 기가 거슬러올라가 그 정상적인 통로를 따라 흐르지 못하므로 잠을 자지 못한다. 기거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숨쉴 때 소리가 나는 것은 폐의 낙맥(絡脈)이 거슬러 흐르기 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문이다. 낙맥의 병은 가볍기 때문에 기거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숨쉴 때 소리가 나는 것이다(<내경>).

§. 단방 (pp.716-719)

모두 열두 가지이다.

* 석창포: 석창포는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데, 달여 먹거나 가루내어 먹어도 좋다(<본초>).
* 연복자(으름덩굴 열매): 연복자는 오장의 기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말소리를 기운차게 한다. 늘 먹는다(<본초>).
* 통초(으름덩굴): 통초는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데, 달여 먹어도 좋다(<본초>).
* 행인(살구의 씨): 행인은 졸인 젖과 섞어 달여 먹으면 목소리가 윤택해지고 기운 있게 나온다. ◎ 좋은 목소리를 바란다면 행인(껍질과 끝을 버린 것) 한 되, 졸인 젖 한 냥에 꿀을 조금 넣고 오자대의 알약을 만들어, 미음으로 열다섯 알이나 스무 알을 먹는다(<본초>).
* 계심: 찬 기운에 감촉되어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데, 곱게 가루내어 입에 물어 나온 즙을 삼킨다. ◎ 목구멍이 가렵고 아프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계심, 행인 각 한 냥을 가루내어 꿀로 앵도대의 알약을 만들어, 솜으로 싸서 입에 물고 녹여 먹는다(<본초>).
* 고죽엽: 갑자기 목이 쉬거나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진하게 달여 먹는다(<본초>).
* 귤피(귤껍질): 갑자기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귤피를 진하게 달여 즙을 내어 자주 먹는다(<본초>).
* 이(배): 중풍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날것을 찧어 즙을 내어 한 번에 한 홉씩 하루에 2번 먹는다(<본초>).
* 건시(곶감): 목소리와 목구멍을 윤택하게 한다. 물에 담갔다가 늘 먹는다(<본초>).
* 호마유(참깨 기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이는 호마유가 폐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이다. 죽력, 강즙, 동변 등과 섞어 먹어도 좋다.
* 동자뇨: 오랫동안 기침을 하여 목이 쉬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이는 동자뇨가 화(火)를 내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오줌은 목소리를 좋게 하는데, 따뜻하게 먹어도 좋다고 하였다(<의학강목>).
* 계자(달걀): 많이 먹으면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한다. 물로 2번 끓어오르게 삶아서 그 물과 같이 먹는다(<본초>).

* 내경편 언어(言語)

§. 폐는 목소리를 주관하여 말을 하게 한다 (p.725)

<난경>에서는 "폐는 소리를 주관하는데 [폐의 사기가] 간에 들어가면 외치게 하고, 심에 들어가면 중얼거리게 하고, 비(脾)에 들어가게 되면 노래부르게 하고, 신(腎)에 들어가면 신음하게 하고, 폐 자체에 들어가면 울게 한다"고 하였다. ◎ 또 "폐사(肺邪)가 심에 침입하면 헛소리나 망령된 말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 말하는 것이 헛되고 망령된 것 (p.727)

스스로 하는 말을 '언(言)'이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는 말을 '어(語)'라고 한다(<세의득효방>). ◎ <내경>의 왕빙 주에서 "섬[헛소리]이란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섬[헛소리]이란 망령된 것이다. 평소 일상적인 일을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게 보지 못한 일을 말하거나, 혼자 말을 하거나 잠자면서 지껄이거나 신음을 그치지 않거나, 심하면 미친 소리를 하고 욕을 하는데, 모두 섬어라고 한다. 모두 위(胃)의 열이 심(心)을 억누른 까닭에 생긴다. ◎ "사기가 양명경에 들어가면 헛소리를 하고 망령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양명경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차가운 기운에 상할 때는 처음에는 [사기가] 피모(皮毛)로부터 침입하여 폐로 들어간다. 폐는 소리를 주관하는데 [사기가] 심으로 들어가면 중얼거리게 된다"고 하였다. 또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날마다 늘 보고 늘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곧 섬어이다.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과 말하는데,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일을 말하는 것이 광언(狂言, 미친 소리)이다"라고 하였다(동원).

◎ 섬어는 말하는 데 조리가 없는 것인데, 이는 사기가 [정기를] 이겼기 때문이다(<만병회춘>). ◎ 옷을 여미지 않으며 좋은 말 나쁜 말을 함에 피붙이와 남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신명이 어지럽기 때문이니, 즉 미친 병이다(<내경>). ◎ 슬프게 울고 신음하고 말하는 것이 헛되고 망령된 것이 바로 사수이다(<의학강목>).

§. 정성 (p.735)

'정(鄭)'이라는 것은 거듭한다[重]는 뜻이다. 말하는 것이 거듭 반복되어 그치지 않으며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니, 정(鄭) 나라와 위(衛) 나라의 바르지 못한[음란한] 음악과 같은 것이다(<의학입문>). ◎ 정성(鄭聲)이라는 것은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기(精氣)가 탈진하였기 때문이다(<만병회춘>). ◎ 정성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떨리고 힘이 없으며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목구멍 속에서 웅얼거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정성이다. 모두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생긴다(동원).

§. 말소리가 약한 것 (p.737)

<내경>에서는 "목소리가 약하고 종일토록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기운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전중의 기가 모이는 것인데 [전중의 기가] 부족하면 기가 적어져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역로>에서는 "진기(眞氣)가 허약하고 맥이 미(微)하며 말하기 싫어하면 인삼황기탕이나 익기환을 쓴다"고 하였다.

§. 외치는 소리 (p.739)

<내경>에서는 "간의 소리는 외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손톱이 푸르고 거칠게 욕설을 계속하는 것은 담기(膽氣)가 끊어진 것이다. 외치며 욕하는 것은 화가 난 소리이다. 미친 병은 이런 경우가 아니다(<천금방>). ◎ 손발톱이 푸륵 외치며 욕하는 것이 많으면 근절증(筋節證)으로 [살 수 있는 날이] 9일로 정해져 넘기기 어렵다(<맥결>).

(3교시)

§. 웃음소리 (p.741)

<영추>에서는 "심기가 하하면 슬퍼하고 실하면 웃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내경>에서는 "심은 신(神)을 간직하는데 신이 넘치면[실하면] 웃음을 그치지 않고, 신이 부족하면 슬퍼한다"고 하였다. ◎ <난경>에서는 "심의 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고 잘 웃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내경>에서는 "심의 소리는 웃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기뻐하는 것과 웃는 것은 모두 심화(心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 황보밀은 "심이 실하면 웃는데, 웃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유완소는 "기뻐하는 것은 심화의 지(志)이다. 기쁨이 지나쳐서 웃는 것은 마치 불이 타올라 불타는 소리가 나는 것과 같으니 바로 이것이 웃음의 상(象)이다. 그러므로 병적으로 웃는 것은 심화가 성한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병을 고치는 법

어떤 부인이 병이 생겨 잘 웃고 그치지 않는 것이 반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치료가 모두 효과가 없었다. 장종정이 "이것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다 소금 덩어리진 것 두 냥 남짓을 불에 벌겋게 달구었다가 식혀서 가루내어, 강물 한 사발과 같이 끓여 따뜻하게 먹이기를 세 차례하고, 차고로 목구멍을 더듬어 열담 네댓 되를 토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황련해독탕을 복용시켰는데, 며칠 되지 않아 웃음이 그쳤다. <내경>에서는 "신(神)이 넘치면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신은 바로 심화이다. 불이 바람을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웃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오행 가운데 오직 화(火)만이 웃게 한다. 일찍이 어떤 노인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웃음이 그치지 않고 입에서는 침이 흘렀다. 황련해독탕에 반하, 죽엽, 죽력, 강즙을 더하여 먹이니 웃음이 그쳤다(자화).

§. 노랫소리 (p.743)

<내경>에서는 "비(脾)의 소리는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족양명경의 병이 심하면 높은 데 올라가 노래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 전광이나 사수 같은 병은 모두 노래하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의학강목>). ? 비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비의 본성이다(<연수>).

§. 우는 소리 (p.745)

<내경>에서는 "폐의 소리는 우는 것이다. 우는 것이 폐의 본래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 <난경>에서는 "폐의 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희고 재채기를 잘 하며, 슬퍼하고 근심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부인이 장조증(臟燥症)이 있으면 슬퍼하며 울려고 한다.

§. 신음 소리 (p.747)

<내경>에서는 "신(腎)의 소리는 신음이다"라고 하였다. ◎ <맥결>에서는 "신음하는 것은 피곤이 쌓여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신(腎)이 병들면 신음 소리를 자주 내는데, 이때 신음 소리는 아플 때 내는 소리이다(<의학입문>).

§. 하품 (p.749)

<내경>에서는 "신은 하품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 <난경>에서는 "신이 병들면 얼굴이 검게 되고 쉽게 두려워하고 하품을 자주 한다"고 하였다. ◎ 황제가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은 어떤 기가 그러하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기백이 대답하기를 "위기는 낮에는 양분(陽分)을 돌고 밤에는 음분(陰分)을 도는데, 음은 밤을 주관하므로 밤이 되면 잠을 자게 된다. 양은 올라가는 것을 주관하고, 음은 내려가는 것을 주관한다. 음기가 아래에 쌓여 있는데 양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양기가 음분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여] 양은 끌어올리려고 하고 음은 끌어내리려고 하여 음양이 서로 끌어당기므로 자주 하품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족양명경이 병들면 기지개를 잘 켜며 자주 하품을 한다"고 하였다. 또 "족양명경이 병들면 기지개를 잘 켜며 자주 하품을 한다"고 하였다(<영추>). ◎ "학질이 시작될 때는 기지개를 잘 켜고 자주 하품을 한다"고 하였다. 또 "이양(二陽, 족양명위경)과 일음(一陰, 수궐음심포경)에 병이 생기면 트림이 잘 나고 하품도 자주 한다"고 하였다. 왕빙은 주에서 "기가 위(胃)에 몰려 막히므로 하품이 난다"고 하였다(<내경>). ◎ 기가 부족하므로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서 기를 끌어들이려고 한다(<의학입문>).

§. 말소리가 약한 것 (p.737)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황제가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것은 어떤 기(氣)가 그러하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기백이 “태양경의 기(양기라고 한 곳도 있다)가 고르게 잘 돌아 심에[가슴에] 꽉 차면 코로 나오게 되므로 재채기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영추>). ◎ <난경>에서는 “폐의 병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재채기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재채기라는 것은 콧속이 가려워 기가 뿜어져나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코는 폐의 구멍이고 가려운 것은 화(火)의 작용이므로, 이것은 화가 금(金, 폐)를 억눌러서 병이 된 것이다(하간). ◎ 주리가 치밀하지 못하면 재채기가 그치지 않는다(<의학강목>). ◎ 하품은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재채기는 기가 통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의학강목>).

§. 트림 (p.753)

트림은 애기(?氣)와 같은 것인데, 배부른 기운이 토해져 나오는 것이다.

§. 한숨 (p.755)

황제가 “사람이 한숨을 쉬는 것은 어떤 기(氣)가 그러하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기백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근심을 하면 심계(心系)가 오그라들고 심계가 오그라들면 기도(氣道)가 조여들고 [기도가] 조여들면 [기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한숨이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영추>). ? 담이 병들면 한숨을 잘 쉰다. 또 “족소양명경맥에 병이 들면 입이 쓰고 한숨을 잘 쉰다”고 하였다(<영추>).

§. 말하는 법 (p.767)

말을 적게 하여 속에 있는 기(氣)를 길러라(<칠금문>). ◎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해수가 되거나 목이 쉰다(<맥결>). ◎ 말하거나 외우거나 읽을 때는 늘 소리가 기해(배꼽 아래의 혈자리 이름이다)에서 난다고 생각한다. 해가 진 후에는 말하거나 외우거나 읽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세의득효방>). ◎ 음식을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하면서 먹으면 늘 가슴과 등이 아프게 된다. 옛사람이 음식을 먹으며 말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세의득효방>).

◎ 누워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기력을 손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려고 누워서는 말을 많이 하거나 웃지 말아야 한다. 잠자리에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장은 종이나 경쇠와 같아서 매달려 있지 않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세의득효방>). ◎ 걸으며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말을 하고 싶으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말을 한다. 걸으며 말을 하면 기운을 잃는다(<세의득효방>). ◎ 이고의 <생언잠>(<신형문>에 자세히 나온다).

§. 고치지 못하는 증 (p.769)

아픈 사람이 옷의 솔기를 더듬으며 헛소리를 하면 고치지 못한다(화타). ◎ 아픈 사람이 음양의 기가 모두 끊어져 옷을 잡아당기고 헛손질하고 허튼소리를 하면 죽는다(화타). ◎ 아픈 사람이 허튼소리를 하며, 정신이 헷갈리거나 말을 하지 못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나 열병이나 미친 병은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고금의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